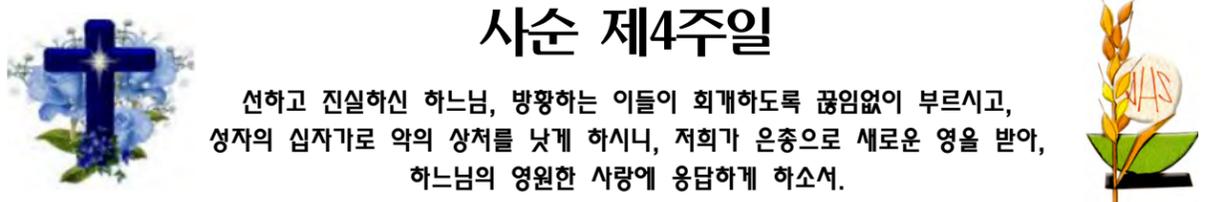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사순 제4주일

선하고 진실하신 하느님, 방황하는 이들이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시고,
성자의 십자가로 악의 상처를 낫게 하시니, 저희가 은총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하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정한조 /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 박상준 안젤로 / 김화년 요안나 가정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인 성 요셉을 공경하며, 그분의 삶을 묵상합니다.

사순시기 운동

- 마니또 뽑기(기도와 희생 봉헌)
- 구역미사 및 판공성사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읽고 감상문 쓰기

전례회의

- 일시 : 3/20(금) 오전 11시
- 장소 : 회관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3/21(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평협

- 일시 : 3/22(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구역회 : 구역미사와 판공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교육부 : 부활 대축일을 맞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캔사스 대교구 대주교님과 청주교구 주교님께 부활 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 청년회 : 2박 3일 청년 피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과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주임 신부님과 평협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일, 사순 특강에 수고해 주신 샌루이스 석근웅 요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7	210	170/168	12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광민 야고보	차서은 세라피나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차주	고영방 스테파노	문호지 안토니오
	김준영 요셉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서정문 토마스 김민영 크리스티나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차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8	78명	317불	1,680불
김화년, 고영방, 정석원, 이지혜, 이현주, 한윤성, 김태중, 홍순익(총 8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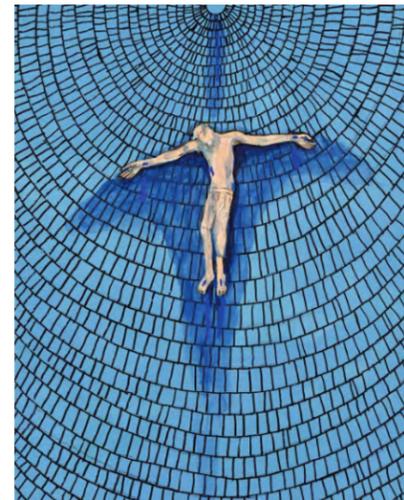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순 시기의 여정을 동반해 온 전례는, 이제 점점 더 큰 희망으로 구원의 기쁨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기쁘게 응답하며, 다가오는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림묵상

진리를 향한 자유

사람의 아들은 높이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고 선택 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역대기 하권 36,14-16.19-23 <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와 해방으로 주님의 분노와 자비가 드러난다. >

화답송



당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구원 하소서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젖노라.
연덕의 수양버들 나뭇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노라. ◎
- 우리를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노래를 거기서 부르라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신명을 내어보라. 조르면서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들려 달라 하였도다. ◎
-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까보나.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하면 내 오른손 그 숨씨도 잊혀지거라. ◎
-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 않는다면 으뎌가는 기쁨으로 내가 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라.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라. ◎

제 2 독서 : 에페소서 2,4-10

<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여러분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 요한 3,14-21 <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세 마

“영원한 생명”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과거를 기억합니다. 바로 하느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역사이고 그 끝은 바빌론 유배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물론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때에 유배가 끝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역사를 다루는 책임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하느님의 계획을 다루는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유배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지만 그 안에서 주는 교훈은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임금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백성 모두가 하느님과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키루스 임금의 칙령은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을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느님의 뜻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동에 속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요한 복음의 언급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심판은 종말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은 이 심판이 더 이상 미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 복음 저자는 ‘지금’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믿는 이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지금의 결정은 이미 앞으로 있게 될 심판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결

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 복음이 보여주는 이러한 생각은 종말과 심판이 지금과 관련 없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은 그 결정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결정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에페소서는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총과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구원 앞에서 자신의 잘한 것을 따질 수도 또 다른 이들을 향해 자랑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선택 앞에서 자유로운 결정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이들은 요한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에 맞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꾸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순시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카톨릭대학 어규 신부 -



주춧돌

제 2 편 은총의 생인 성사와 기도

제12-1 장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꼴꼴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쩡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루카 18,10-14).

【주석】

바리사이는 꼴꼴이 서서 : 이 바리사이는 자기 ‘과’에서 요구하는 여러 신심 행위를 참으로 잘 이행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가 의롭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기도할 때조차도 하느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주석 성경, 신약, 312).

세리는 멀쩡이 : 당시 세리는 세무를 맡아보는 벼슬아치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가장 타락한 이로 취급 받았다. 곧 드러난 죄인이다. 그런 세리는 “멀쩡이” 선다. 세리는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꼴꼴이 선 바리사이에게서, 또는 성전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게서 떨어진 자리에 있다(상동 참조).

가슴을 치며 : “가슴을 치며”란 뉘우치는 자의 자세이다. 우리는 미사 때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반성한다.

【설명】

▶ 왜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자세와 본을 받지 말아야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이다. 이렇게 하여 이 비유는 바리사이와 청중이 자기의 좁은 시각 또는 한계를 벗어나도록 이끌어준다. 이 비유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걸어로 드러내려는 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본다. 루카에게는 이 비유가 곧 겸손의 촉구이다. 세리는 자신에 대하여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는 사실 죄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통회와 고백이 그를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으로 이끌어 준 것이다. 바리사이는 자기의 행동으로 ‘의로움’을 얻는다고 자신하지만, ‘의로움’은 하느님만이 부여하실 수 있는 은혜이다.

【교회의 가르침】

▶ 용서를 청함은 청원 기도의 첫 단계이다(“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세리, 루카 18,13). 용서를 청함은 올바르게 순수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다. 겸손하고 신뢰심을 가져야만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고 타인들과도 친교를 나누어, 다시 빛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31항).

【어록】

▶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느님이 죄를 찾아내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 아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서 죄가 발견된다. 왜냐하면, 만인이 죄를 지었고, 만인이 하느님의 영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서 죄가 발견된다면, 행복한 사람은 죄를 용서 받는 사람들뿐이다(성 아우구스티노).

▶ 기억하십시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